

 POSRI 보고서

日 철스크랩 산업 구조재편 본격화되나

박수항 수석연구원, 산업전략연구센터 (spark0326@posri.re.kr)

[목 차]

1. 가시화 되는 일본 철스크랩 산업의 구조재편
2. 급속한 수익성 악화와 업계 재편의 배경
3. 일본 철스크랩 산업의 전망도 불투명
4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'13년 6월 일본 메탈원 상사와 미쓰이 상사는 철스크랩 사업과 건설강재 사업에 대한 양 사의 통합 검토를 착수
 - 통합 주체는 각 사의 100% 자회사인 메탈원건축자재와 미쓰이스틸이며, 건설강재 사업과 철스크랩 사업이 통합 대상임
-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본 철스크랩 전문 기업들의 연이은 파산과 더불어 일본 철스크랩 시장의 본격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신호탄이라는 주장이 제기
 - '11년 말부터 아즈마금속, FE Material, 요시나카 상사 등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며 연 매출 300억엔 이상을 기록하던 대형 스크랩 기업들이 잇따라 파산
 - 해당 기업들은 중국 수요 증가에 따른 무리한 확장과 잡품(철·비철 등의 혼합 파쇄 제품) 등 중국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리먼사태와 동일본대지진 이후 수익이 급격히 악화
 - 대형 기업들의 통합 움직임은 수익 악화와 수요·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음
 - 즉, 규모 확대를 통한 구매 교섭력을 강화하고, 중복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
- 중장기적으로도 일본 철스크랩 시장은 점진적인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 합리화 노력과 경쟁 열위 기업들의 시장 퇴출 등 시장 구조재편이 본격화될 가능성 존재
 - 제조업 공동화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철스크랩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
 - 원전 폐쇄에 따른 전기료 상승 등은 전기 사용이 많은 전기로 제강 및 철스크랩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비용 악화를 초래
 - 산업을 지탱해왔던 철스크랩 수출 시장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 한국과 중국의 자급률 증가에 따라 점차 물량이 감소할 전망
- 국내 기업들은 철스크랩 원료 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본 주요 거래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하고, 철스크랩 유휴 가공설비를 활용한 고급 스크랩의 장기적·안정적 확보 전략을 검토할 필요
 - 한국은 자급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, 고급 스크랩에 대한 수요에 따라 '20년 이후에도 300만톤 수준의 고급 철스크랩 수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
 -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피하고, 전략적인 물량 배분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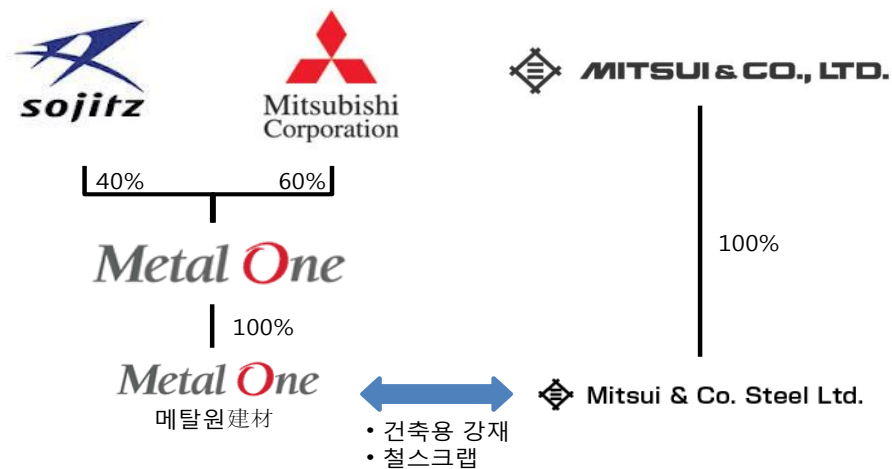
1. 가시화되는 일본 철스크랩 산업의 구조개편

□ 메탈원건축자재와 미쓰이스틸은 '14년을 목표로 철스크랩 및 건설강재 사업의 통합 검토 착수 (2013. 6. 12 발표)

○ 양 사는 대형 상사기반의 일본 내 철스크랩 1, 2위 규모 기업으로서, 시장 파급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

- 메탈원건축자재는 미쓰비시상사와 소지츠상사의 합자회사인 메탈원상사의 100% 자회사이므로, 사실상 일본 내 3개 상사의 철스크랩 사업이 통합되는 셈

<메탈원건축자재와 미쓰이스틸 지분 구조>



- 통합의 목적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일본 철스크랩 및 건설강재 사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결집과 이를 통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○ 금년 4월 미쓰이스틸이 계열사인 미쓰이메탈즈의 철스크랩 사업을 인수 완료한 직후여서 결과적으로 메탈원건축자재와의 통합을 염두에 둔 사전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음

- 제품판매(건설강재, 미쓰이스틸)와 원료공급(철스크랩, 미쓰이메탈즈)을 동일회사(미쓰이스틸)로 귀속시킴으로써, 메탈원건축자재와 동일 사업구조 구축

□ 기업들의 통합 움직임은 최근 일본 대형 철스크랩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과 더불어 일본 철스크랩 시장 재편에 대한 신호탄이라는 주장 제기

○ '11년 말부터 아즈마금속, FE Material, 요시나카 상사 등 대형 스크랩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 신청

- 아즈마금속은 1955년 설립되어 5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왔으며, 연 최고 매출 100억엔 수준을 기록
- FE Material과 요시나카 상사는 각각 '89년, '94년에 설립된 연 최고 매출 300억엔 수준의 대형기업

2. 급속한 수익성 악화와 업계 재편의 배경

□ 최근 발생한 기업들의 직접적인 파산 원인은 무리한 투자와 중국向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따른 리스크 관리 실패

○ 일본 철스크랩 시장은 90년대 자급 달성 이후 중국발 자원 붐을 배경으로 수출 중심의 급격한 외형 확장을 이루어왔으나, 리먼사태 및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철스크랩 가격이 급락하며 수익성 악화

- 아즈마금속은 인수·합병을 반복하며 급격한 외형 확대를 시도했으나, 철·비철 시세 하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

○ 특히 2000년대 중국의 급속 수요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던 잡품(Mixed Scrap)*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여왔던 것이 수익성 악화의 주 요인으로 작용

* 일본 스크랩 분류 중 하나로, 공장 해체 시 발생하는 배전반이나 트랜스, 모터 등의 공업용 잡품과 폐가전제품을 수집한 가전잡품으로 구성

- 중국은 폐가전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, 일본 또한 제품 원형 그대로는 선적 예비검사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분쇄하여 스크랩 형태로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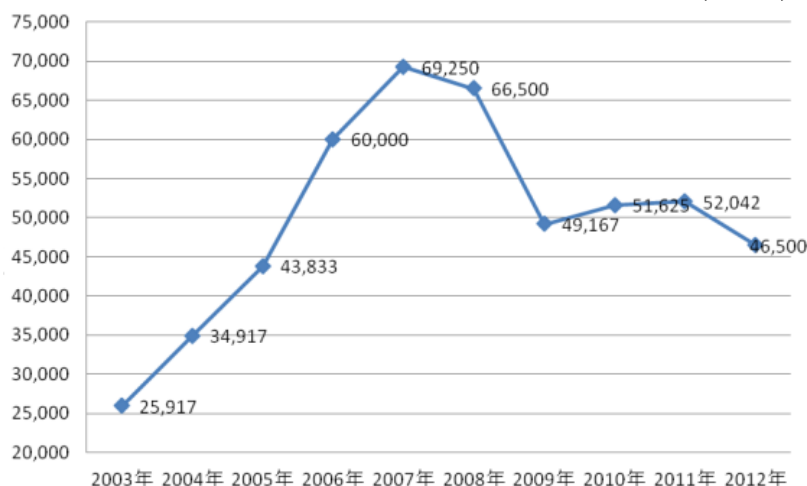
- 중국 스크랩 시장은 이러한 잡품을 수입하여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해체·선별을 통해 제강사에 납품하는 구조

- 리먼사태 이후 인건비 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기업들이 일본 내에 야드를 개설하고 중국향 수출물량을 직접 집하하기 시작하였으며, 이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급락

- '12년 파산한 FE Material과 요시나카 상사도 중국向 잡품 수출 중심으로 매출을 확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짐

<일본의 공업용 잡품 FOB 평균가 추이>

(엔/톤)



* 자료: iruniv.net

□ 반면, 대형기업간의 자발적인 통합은 전기로 제강사의 구조조정과 철스크랩 환경 변화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해석됨

- 신일철, 스미토모 등 고로 중심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전기로 제강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음
- 전기로 제강사 대상의 구매(건설 강재)와 판매(철스크랩)를 일원화 할 경우, 매출채권과 매입채권에 대한 Risk 저감이 가능하고 전략 효율성의 제고가 가능해짐
- 통합을 통한 규모 확대로 구매 교섭력을 강화하고, 중복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도 가능

3. 일본 철스크랩 산업 전망도 불투명

□ 일본 철스크랩 산업은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감소하며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고,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본 내 철강 축적량의 증가 추세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, 자가발생과 시중 구매 등 일본 내 철스크랩 공급도 감소 추세에 있음
 - 일본은 '90년대 이후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이 본격화되었으며, '15년에는 해외 생산 비율이 30%에 육박할 전망
 - '30년까지 일본 철강 축적량 증가율은 연평균 0.35%로 사실상 정체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(日 Scrap Recycling Research사)
 - 일본 내 철스크랩 구매량은 '07년 3천8백만톤에서 '12년 2천8백만톤으로 연 평균 -5.2%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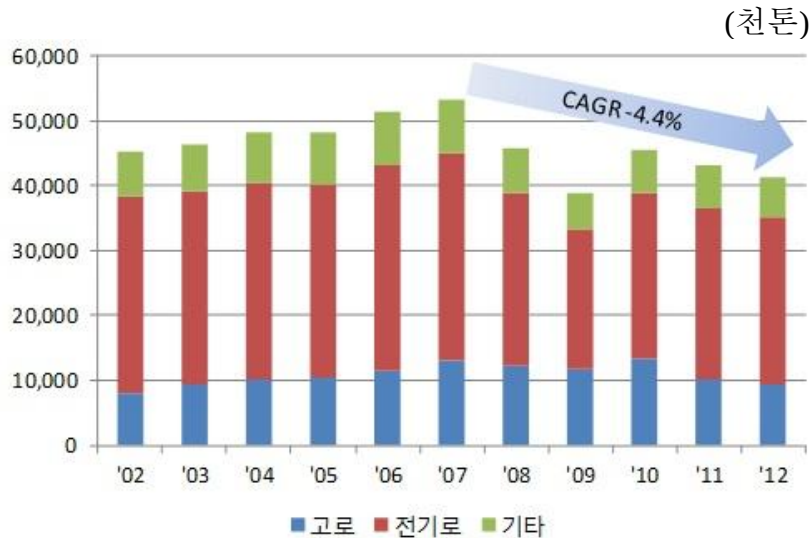
<일본 기업의 해외생산 비율 추이>



* 자료: 日 내각부경제사회종합연구소, KOTRA 재인용

- 수요 측면에서도 전기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철스크랩 사용 감소 또는 정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 - 일본의 연간 건설부문 투자액은 '90년대 초 84조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, '12년에는 피크 대비 절반 수준인 45조엔까지 하락

< 일본 철스크랩 소비 추이 (회계연도 기준) >



- 원전 폐쇄에 따른 전기료 상승 등은 전기 사용이 많은 전기로 제강 및 철스크랩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비용 악화를 초래할 것임
 - 원자력 발전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천연가스 등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발전이 확대될 전망
- 수출을 통해 산업 규모를 유지해왔으나, 주요 수출국인 한국과 중국의 자급률 상승세에 따른 장기적 수입량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대체선 탐색에 고심하고 있음
 - 일본 철스크랩 산업은 90년대 자급 달성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, 수출 물량의 90% 이상을 한국과 중국이 차지
 -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도 연 평균 5.7%의 높은 철강 축적량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음
 - 노폐스크랩 증가에 따라 '10년 국내 철강 축적량은 5억 4천만톤을 초과
 - 하지만 고급 스크랩 공급부족으로 '20년 이후에도 300만톤 이상의 고급스크랩 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
 - 중국 또한 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연 평균 12% 이상의 기록적인 철강 축적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
 - 현재까지 축적된 철강 50억톤 중, 40억 톤이 축적되는데 걸린 기간은 불과 16년(최초 10억톤 축적 시에는 40여 년 소요)
 - 현 속도대로 증가 시 '20년 철강 축적량은 100억톤에 달할 전망

- 산업 여건의 악화에 따라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 합리화 노력과 경쟁 열위 기업들의 시장 퇴출 등 시장 구조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

4. 시사점

□ 국내 철스크랩 고급화 및 장기적·안정적 확보 방안 검토

- 국내 자급률 향상 이후에도 고급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임
- 슈레더 등 가동률 낮은 일본 가공설비 중 고효율 설비를 국내로 이전하여 활용하거나, 일본 현지에서 장기 계약을 통해 가공 고급 스크랩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
 - 일본의 슈레더 가동률은 '10년 기준 약 45% 수준이며, 자동차 판매량 감소와 경량화에 따라 '20년에는 29~36%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(日 Scrap Recycling Research사)

□ 철스크랩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피하고, 전략적인 물량 배분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 필요

- 자원으로 인지되는 철스크랩의 특성 상,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국가의 수출 규제 등 갑작스런 제약조건 발생 가능
 - '09년 러시아의 갑작스런 철스크랩 수출 제한 정책 시행으로 러시아産 철스크랩의 국내 수입 비중이 급락한 바 있음('08년 17% → '09년 10%)

□ 국내 기업들은 철스크랩 구매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일본 내 주요 거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
- 일본 언론을 통해 소개된 철스크랩 업계의 일반적인 도산 징후는 비정상적으로 매출이 급증하거나, 은행 계좌가 변동되는 등 평소와 다른 갑작스런 변화가 사전에 발생하는 경우임
-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은 항상 존재하므로 해당 징후 외에도 지속적으로 동향 모니터링 실시

[참고 자료]

[공개 자료]

메탈원, 미쓰이 언론 보도자료 ('13. 6) – 홈페이지 (www.mtlo.co.jp, www.mitsui-steel.com)

[협회 자료]

日 철원협회 “철원수급 기본정보”

[리서치 기관 보고서]

日 Recycle Research 연구보고서

“2030年の鉄スクラップ需給展望—今年を飛躍元年に!” ('13. 2)

“2020年の蓄積量から推定した韓国と中国の自給化状況”(‘12. 6)

[한·일 스크랩 정보 언론 자료]

日 IRuniverse (www.iruniv.net)

“金属リサイクル業界は斜陽産業 銀行の目厳しく” ('12. 9)

“鉄鋼メーカーの大再編と歩を合わせる原料商社業界

三井物産 S & メタルワン建材統合から読む道筋”(‘13. 6)

“スクラップ業界はサバイバル 予想以上に倒産企業は増える可能性大” ('12. 10)

“家電雑品市場の隆盛と衰退にみる国内リサイクル市場の陰影” ('13. 5)

日 일간산업신문(www.japanmetal.com)

“スクラップ輸出業者、苦境大手、相次ぎ破たん” ('12. 10)

“縮小する鉄スクラップ市場 生き残りをかけて - 需給変化に募る危機感 / 中韓自給化へ
新市場開拓を模索” ('12. 9)

韓 스크랩워치(www.scrapwatch.kr)

“지난해 일본 스크랩 소비량 4,100만톤... 2년째 감소” ('13. 5)

“일본 스크랩 1, 2위 상사의 통합발표에 시장 발칵” ('13. 6)

“쓰러지는 일본 대형스크랩 기업들 왜?”('12. 9)

[기타]

산케이비즈, 후지경제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 자료 참고